

## 9/8(화) 시편 묵상 17

### 시편 81:1-7

시편 81편은 시인이 이 말씀의 주체로서 1인칭 설교형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의 표제는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설교자가 누구인지에는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3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시의 배경은 장막절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신년 축제의 절기였던 장막절은 신년을 맞아 나팔을 불며 새해를 알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 축제의 찬양

본문 1-5절까지 축제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우리”, “야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찬양할 것을 외칩니다(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호칭하던 표현입니다(창 35:10,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시인은 계속해서 시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2절에 기록된 ‘소고와 비파’는 이스라엘의 축제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악기로 늘 한 쌍을 이루며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2절,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축제가 성전 밖에서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행렬에 동참하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주님을 악기와 소리로 찬양하게 됩니다.

#### 축제 중에 전하는 말씀 –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

축제가 진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5-7절).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5절의 말씀에서 여기서 ‘요셉의 때에 주신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집트의 장자를 치실 때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받게 되었던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제 그들이 이집트의 강제 노역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었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6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7절 상,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이는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출 2:23,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7절 중,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7절 말씀을 이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출 20:18-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먹구름 속 천둥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며 모세에게 십계 돌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

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 후반절은 므리바 물가에서의 시험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므리바 물 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7절의 내용이 특이한 이유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출 17:1-7; 민 20:1-13)에 보면, 므리바 물가에서 죄를 지은 대상은 이스라엘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81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을 시험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출 17:7, “**그가 그 곳 이름을 맞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었도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도라**”).

이스라엘은 장막절이라 불리는 국가적 축제일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한 그들의 죄는, 물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음에서도 때로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를 믿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이란, 눅 8:15절의 말씀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유혹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결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완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기도제목

1. 우리의 마음 밭이 길가밭, 돌짜밭,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남미의 이철남<멕시코>, 홍성진<페루아마존>, 황윤일<페루>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